

2007~2010년간

## 대학도서관 사서 모집현황 분석 및 전망

문화정보학 전공자에게 있어 취업의 꽃은 대학도서관 사서로의 진출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대학도서관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에 비해 외형적으로 규모가 크고, 업무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영역별로 전문화되어 있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근무시간이나 급여, 복지 등과 같은 근무조건 및 환경 역시 타 관종에 비하여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때문에 전공자들 사이에는 기회가 된다면 누구나 대학도서관 사서로의 꿈을 꾸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학을 둘러싼 내외적인 상황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 특히, 대학 외적으로는 대학 간 무한경쟁체제의 확산 및 심화, 입학자원의 절대적 감소, 정부 및 각종 기관의 지원시 엄격한 평가 잣대 적용 등의 영향과 내적으로는 대학내 도서관 위상의 점

진적 약화, 사서직원 수의 감소, 사서직에 대한 전통적 인식 약화로 인한 입지 위협 등으로 인하여 대학교직원 채용에 있어 도서관 사서는 대개 후순위이거나 고려대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는 사서직원의 본부부서 이동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1987년 사서자격증 발급자가 2,000여명을 돌파한 이래 최근에는 매년 2,400여명 내외의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고 있는데, 본 글은 이 정도의 공급에 미루어 볼 때 전체 관종 대비 대학도서관 사서의 모집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사서e마을> 정규직, 비정규직 코너에 2007~2010년간 게재된 모집공고 중심으로 월별, 지역별, 대학 설립주체별 현황 분석 및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 정규직 사서 모집현황 분석

대학도서관 정규직 사서 모집현황의 조사방법은 2007~2010년간 <사서e마을><sup>1)</sup> 정규직 코너에 게재된 모집공고 가운데 대학도서관에 해당하는 모집공고 160건(180명)을 대상으로 연·월별, 지역별, 대학설립 주체별로 분석하였다.

모집공고 분석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집공고 상 인원이 '0' 명으로 표기된 곳은 편의상 1명으로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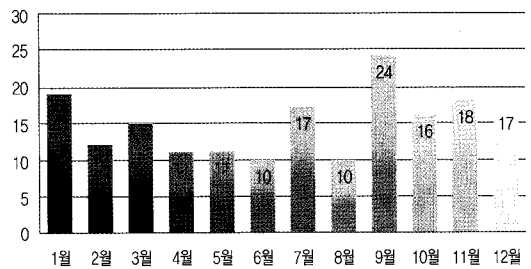
둘째, 모집공고 상에 언급된 응시조건과 자격제한 요건 등은 제외하고 연·월, 지역, 대학 설립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모집인원의 월별 분석시 적용일자(사서e마을)에 글이 게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였다.

### 연·월별 모집현황

2007~2010년간 대학도서관 정규직 사서의 모집현황은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80명으로,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69명(38.3%), 2008년 54명(30.0%), 2009년 33명(18.3%), 2010년 24명(13.3%)으로 매년 모집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대학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들 예컨대 입학자원의 감소, 교육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 입학생수의 급감, 대학 전반의 구조조정 분위기 심화 등의 위기감이 고조되어 일반 행정직도 필요한 최소 인력만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서직의 경우 퇴직과 같은 자연적인 인력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채용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월별 모집현황은 채용 시기를 가능하거나 예상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학도서관 정규직 사서 모집의 2007~2010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9월이 24명(1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1월까지의 현황을 보면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채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대학도서관 정규직 사서 연·월별 모집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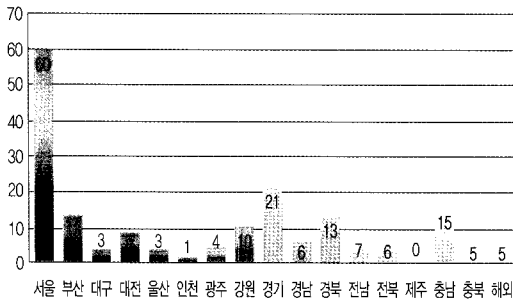
<표 1> 대학도서관 정규직 사서 연·월별 모집현황

월	2007	2008	2009	2010	계	비율(%)
1월	6	4	2	7	19	10.6
2월	3	5	3	1	12	6.7
3월	7	3	3	2	15	8.3
4월	4	3	3	1	11	6.1
5월	6	1	2	2	11	6.1
6월	4	4	1	1	10	5.6
7월	5	8	3	1	17	9.4
8월	4	4	2	0	10	5.6
9월	7	11	5	1	24	13.3
10월	5	6	3	2	16	8.9
11월	8	4	3	3	18	10.0
12월	10	1	3	3	17	9.4
계	69	54	33	24	180	100.0
비율(%)	38.3	30.0	18.3	13.3	100.0	

1) 사서e마을 : 사서직 취업 커뮤니티, <http://www.librarian.co.kr>, <인용. 2011. 2. 12.>

하지만 2009년 34명, 2010년 24명의 현황에서 보듯이 최근의 대학도서관 모집인원의 월별 현황이 2~3명에 불과하여 인력수요가 극대로 위축된 상황이라 하겠다.

### 지역별 모집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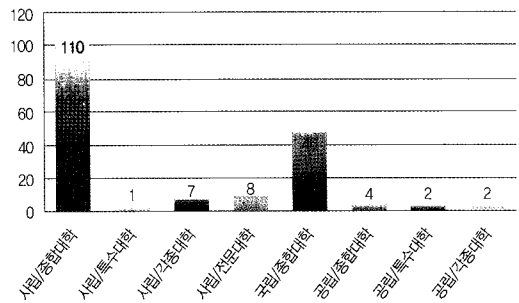
〈그림 2〉 대학도서관 정규직 사서 지역별 모집현황

〈표 〉 대학도서관 정규직 사서 지역별 모집현황

지역	2007	2008	2009	2010	계	비율(%)
서울	27	19	7	7	60	33.3
부산	6	4	2	1	13	7.2
대구	1	1	1	0	3	1.7
대전	4	0	3	1	8	4.4
울산	0	2	0	1	3	1.7
인천	0	1	0	0	1	0.6
광주	0	1	0	3	4	2.2
강원	3	2	4	1	10	5.6
경기	10	10	1	0	21	11.7
경남	1	3	1	1	6	3.3
경북	1	4	5	3	13	7.2
전남	5	0	2	0	7	3.9
전북	3	0	2	1	6	3.3
제주	0	0	0	0	0	0.0
충남	5	6	3	1	15	8.3
충북	1	0	1	3	5	2.8
해외	2	1	1	1	5	2.8
계	69	54	33	24	180	100.0
비율(%)	38.3	30.0	18.3	13.3	100.0	

2007~2010년간 대학도서관 정규직 사서 모집 인원 1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각각 60명(33.3%)과 21명(11.7%)으로 두 자리 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충남 15명(8.3%), 부산과 경북이 각각 13명(7.2%), 강원 10명(5.6%)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시도는 지난 4년간 한 자리 수 이하의 채용으로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 대학 설립주체별 모집현황



〈그림 3〉 대학도서관 정규직 사서 대학설립 주체별 모집현황

〈표 3〉 대학도서관 정규직 사서 대학설립 주체별 모집현황

설립 주체	대학 구분	2007	2008	2009	2010	계	비율(%)
사립	종합대학	43	35	18	14	110	61.1
	특수대학	0	0	0	1	1	0.6
	각종학교	3	3	1	0	7	3.9
	전문대학	4	2	2	0	8	4.4
국립	종합대학	18	12	11	5	46	25.6
	종합대학	0	1	1	2	4	2.2
공립	특수대학	0	0	0	2	2	1.1
	각종학교	1	1	0	0	2	1.1
계		69	54	33	24	180	100.0
비율(%)		38.3	30.0	18.3	13.3	100.0	

2007~2010년간 대학도서관 정규직 사서의 모집현황을 대학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국립 대학도서관이 46명(25.6%), 공립 대학도서관 8명(4.4%)인 반면, 사립 대학도서관이 126명(70.0%)으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이를 대학의 규모로 비교하여 보면 지난 4년간 전체 모집인원 180명 중에서 160명(88.9%)이 도서관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4년제 종합대학교에서 채용이 된 반면, 소규모의 대학도서관이나 전문 대학도서관의 경우 극소수의 인원만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 비정규직 사서 모집현황 및 시사점

대학도서관에서 비정규직 사서가 증가한 것은 1990년대 전산화가 시작되면서 소급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김경미의 서울지역 사립 대학도서관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도서관 직원 중 비정규직이 전체 직원 중 차지하는 비율이 39.7%에 이를 만큼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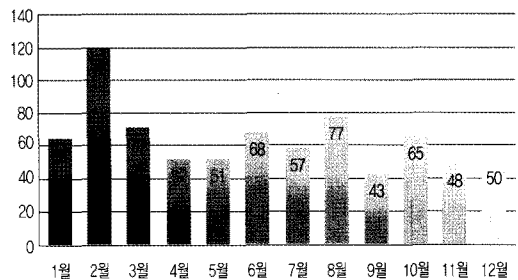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대부분 완료된 최근의 대학도서관 상황을 살펴보면 예산의 절감, 인력구조의 탄력성 확보, 인턴십 강화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비정규직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모집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07~2010년간 <사서e마을> 비정규직 구인코너에 게재된 공고 글 목록 735건(모집인원 767명)을 대상으로 연·월별, 지역별, 대학 설립주체별로 분석하였다. 본 글에서 비정규직 사서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사서 등이 해당된다고 하겠다.

### 연·월별 모집현황

먼저 2007~2010년간 대학도서관 비정규직 사서의 모집현황은 <표 4>에서와 같이 767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225명(29.3%), 2008년 190명(24.8%), 2009년 204명(26.6%), 2010년 148명(19.3%)으로 정규직 사서 모집과 마찬가지로 매년 모집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기간



<그림 4> 대학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연·월별 모집현황

<표 4> 대학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연·월별 모집현황

월	2007	2008	2009	2010	계	비율(%)
1월	16	22	11	16	65	8.5
2월	32	34	33	21	120	15.6
3월	18	27	15	11	71	9.3
4월	22	6	17	7	52	6.8
5월	18	11	12	10	51	6.6
6월	17	12	26	13	68	8.9
7월	9	16	23	9	57	7.4
8월	22	19	15	21	77	10.0
9월	10	4	15	14	43	5.6
10월	27	16	15	7	65	8.5
11월	19	5	16	8	48	6.3
12월	15	18	6	11	50	6.5
계	225	190	204	148	767	100.0
비율(%)	29.3	24.8	26.6	19.3	100.0	

정규직 사서 모집인원이 180명인 것과 비교하여 보면 비정규직 사서의 모집인원은 767명으로 약 4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사서의 월별 모집현황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월이 120명(1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8월이 77명(10.0%)인데, 이는 대학의 학사일정이 학기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모집이 다소 집중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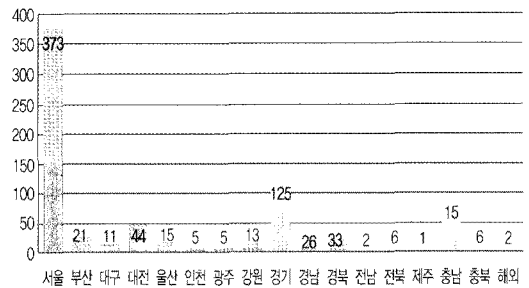
그리고 나머지 월의 경우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는데 이는 비정규직 채용의 특성상 채용기관의 사정이나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에 따른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본인의 원에 의해 그만둘 경우 후임자를 즉시 채용하기 때문이다.

#### 지역별 모집현황

2007~2010년간 비정규직 사서 모집인원의 지역별 현황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373명(48.6%)과 125명(16.3%)으로 전체 대비 65%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및 경기지역의 정규직 사서 모집현황이 45%인 것과 비교하면 약 2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사서 모집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충남 79명(10.3%), 대전 44명(5.7%), 경북 33명(4.3%)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비정규직 사서 모집이 거의 없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2007년 111명을 채용한

것과 비교하면 2010년 64명만을 모집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모집인원이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정규직 사서 모집의 경우 <사서마을> 비정규직 코너가 아닌 지인이나 학과 추천 등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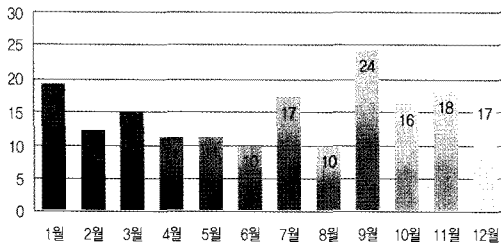
<그림 5> 대학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지역별 모집현황

<표 5> 대학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지역별 모집현황

지역	2007	2008	2009	2010	계	비율(%)
서울	111	102	96	64	373	48.6
부산	4	4	9	4	21	2.7
대구	4	4	1	2	11	1.4
대전	10	14	11	9	44	5.7
인천	9	1	4	1	15	2.0
광주	1	1	3	0	5	0.7
울산	1	1	2	1	5	0.7
강원	2	0	3	8	13	1.7
경기	37	30	30	28	125	16.3
경남	13	3	7	3	26	3.4
경북	6	7	9	11	33	4.3
전남	0	1	1	0	2	0.3
전북	2	1	3	0	6	0.8
제주	0	0	1	0	1	0.1
충남	22	18	23	16	79	10.3
충북	3	2	0	1	6	0.8
해외	0	1	1	0	2	0.3
계	225	190	204	148	767	100.0
비율(%)	29.3	24.8	26.6	19.3	100.0	

### 대학 설립주체별 모집현황

다음으로 비정규직 사서 모집인원을 대학의 설립주체별로 보면 사립 대학도서관이 641명으로 전체 대비 83.5%인 반면, 국립과 공립 대학도서관은 각각 83명(10.9%), 43명(5.6%)으로 대학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모집의 대부분이 사립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립 대학도서관에서 비정규직 사서의 채용이 많지 않은 것은 인턴이나 공익근로 요원과 같은 대체 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림 6) 대학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대학 설립주체별 모집현황

(표 6) 대학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대학 설립주체별 모집현황

설립주체	대학구분	2007	2008	2009	2010	계	비율(%)
사립	종합대학	156	131	142	120	549	71.6
	특수대학	0	2	3	2	7	0.9
	각종학교	10	11	6	7	34	4.4
	전문대학	9	17	14	11	51	6.6
국립	종합대학	17	8	7	4	36	4.7
	특수대학	13	11	21	0	45	5.9
	각종학교	0	1	1	0	2	0.3
공립	종합대학	16	9	8	0	33	4.3
	특수대학	4	0	0	3	7	0.9
	각종학교	0	0	2	1	3	0.4
계		225	190	204	148	767	100.0
비율(%)		29.3	24.8	26.6	19.3	100.0	

한편 대학의 규모나 성격에 따른 비정규직 사서 모집현황을 살펴보면 종합 대학도서관이 618명(80.6%)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특수대학 59명(7.7%), 전문대학 51명(6.6%), 각종 학교 39명(5.1%)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교적 규모가 큰 종합 대학도서관에서 비정규직 사서 모집이 많은 것은 기존 비정규직 사서가 일정기간 근무 후 대체 인력으로 반복적으로 고용되거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의 일시적인 보충이 소규모 도서관에 비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양적으로는 대학 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모집인원이 정규직 사서와 비교하여 볼 때 4배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사서의 채용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비정규직 사서의 소속감 결여,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의 저하, 인재형성 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 심화와 같은 문제로 확대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사회 전반에 걸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장기 고용에 관한 폐해나 심각성에 비하여 문제인식에서부터 현황 파악이나 분석, 대책과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도서관계도 예외가 아니며 실제로 각 도서관별로 적지 않은 수의 비정규직 사서가 근무하고 있지만 얼마의 비정규직 사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임금이나 계약기간, 근무환경 등은 어떠한지에 관한 조사나 연구 역시 미진한 실정이다.

## 나가면서


대학도서관(정규직 및 비정규직) 사서 모집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추세가 뚜렷하여 적어도 사서직 채용에 관한 현실이 우울하고 미래 전망 역시 불투명한 실정인데, 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도서관 정규직 사서의 모집현황은 2007년 69명(38.3%), 2008년 54명(30.0%), 2009년 33명(18.3%), 2010년 24명(13.3%)으로 매년 줄고 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모집인원이 겨우 24명에 불과한데, 이를 12월로 나누면 산술적으로 한 달에 겨우 2명 정도의 채용만이 이루어졌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모집현황이 전체 45%를 차지하고, 월별로는 고른 분포를 보이나 하반기에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사서의 모집현황은 2007년 225명(29.3%), 2008년 190명(24.8%), 2009년 204명(26.6%), 2010년 148명(19.3%)으로 정규직 사서 모집과 마찬가지로 매년 모집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매학기 시작시점은 2월과 8월의 모집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모집인원이 전체 65%로 정규직 사서의 45%와 비교하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좀 더 심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대학도서관 사서의 채용여건은 당분간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주

지하다시피 대학은 앞으로 10년 이내 입학자원의 감소 및 경쟁의 심화 속에 대단한 혼란기를 맞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생존의 기로에 직면할 수 있고 위기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질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 기관, 즉 대학은 도서관의 인력 요구를 우선순위에 올려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사서를 중심으로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창의적인 이용자 서비스 및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요구 및 확보를 위한 노력을 대학 본부 측에 지속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할 경우에만 대학도서관 사서 채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 지 흥  
사서마을 관리자  
대구대학교 기획팀 계장  
kjh1@daegu.ac.kr